

## 첫째를 첫 번째에

마태복음 6:30-34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2018년도입니다. 누군가 경험이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갈 텐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새해를 이제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가는 이 길은 힘들 때도 있을 것이지만, 이 새해를 축복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가득 찬 축복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 1.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31)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려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모든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나무이신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올해를 염려 안 하는 해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 2. 믿음을 크게 하라

제 사무실에는 시험 답안지가 수십 장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 가르친 것을 시험 본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페이퍼도 있습니다. 채점을 해야 하는데 객관식은 분명하지만 주관식 답안지는 잘 보고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점수가 A, B, C 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 하십니다. 믿음의 성적은 - 믿음이 없음, 믿음이 작음, 믿음이 큼 입니다. 이 시험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채점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몇 가지로 믿음을 시험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fog test)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진짜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을 뿐 아니라 김이 서려도 금세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알기 위해 역경으로 우리를 혹 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과 함께 믿음이 날라 가기도 하고 변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염이 덩수룩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길게 수염을 기르셨습니까?” 수염이 덩수룩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수염을 길렀다고요? 난 단지 면도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들풀을 보고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런 들풀은 귀찮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관점을 통해 판별됩니다. 큰 믿음으로 삽시다!

### 3.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학개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잃은 모습, 찾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잃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과, 우선순위를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학 1:2-7)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들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무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학 1:12-13)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2018년을 보낼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과 축복으로 가득 찬 2018년을 보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긍정으로 보는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 것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사십시오. 첫째를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십시오. 모두 축복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 나눔의 시간 ○

1.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나요?
3.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첫째이신 분은 누구인가요?